

2024 년월일 “(아바드의 사람들 9) 고난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얻다”(렘 15:15-20)

오늘은 예레미야를 통해 어떻게 창조의 목적대로 가꾸는 삶으로 인도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예레미야의 삶

20 살에 선지자로 부름 받은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이 바빌로니아의 위협 속에 놓이자, 적국에 투항하라는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실 거라고 믿은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심히 배척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뭉친 결과 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자기 백성들이 종교의 틀을 세우고, 그 틀 안에 선택적(부분적)으로 말씀을 담아 체계화하고 신념화 하는 경직된 모습을 '마음의 포피'로 표현하셨습니다.

렘 4:4 '...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 너희를 태울 것이니'

렘 5:1 '...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지켜 주시기에 합당할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하시며, 굳어진 자기 마음을 깨고,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백성을 원하셨습니다.

[2] 두려움, 외로움, 상처, 분노

예레미야서의 특징 중 하나는 선지자의 탄식이 담긴 7 개의 기도문입니다. 본문은 4 번째에 해당하는 감정표현의 여과가 없는 친밀한 어투의 기도문입니다. 선지자의 감정 상태를 보면,

- (1) 두려움(v.15) 주님의 인내심이 길어서 대적자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두려움
- (2) 외로움(v.16-17) 말씀을 잘 대언하고 여전히 주님 손에 붙들려 있지만 배척당하는 외로움
- (3) 상처(v.18a) 악인의 잔인함,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사역을 하지만 사랑의 보상이 없는 쓰라림.
- (4) 분노(v.18b) 하나님 말씀에 속은 느낌으로 말미암은 분노(20:7 참고)

[3] 하나님의 답변과 계획

v.19-20 이것은 새롭게 하시려는(갱신 renewal)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을 말해줍니다.

“돌아오라”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이라 하시며 예레미야가 잃은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결여된 것입니다. 말씀의 실체를 잡으려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은 것 같은 느낌은 주님께 돌아와야 회복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천박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신앙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며 안타까워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도 아니고, 상대를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주님께 이전보다 더 가까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 삶과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갱신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없이 갱신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족과 교우들과 친구들, 그리고 대적자들을 위해 중보할 때에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확신과 순종이 따른다면 그것은 나와 공동체에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삶과 공동체를 가꾸는 선지자적 아바드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영적 교훈이 우리 공동체 축복을 위한 안내의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예레미야가 사역자로서 무엇이 힘들었을까요? 몇 가지를 말씀해 보세요.
2. 사람의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 특히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